

# 다자녀 가정의 출산배경과 지원정책 욕구 분석에 관한 연구: 혼합방법론을 이용하여

염 주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 승 은\*  
(한국교통대학교)

주 영 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 연구는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셋째 자녀 출산 과정과 다자녀 양육 시 필요한 지원 및 사회적 여건을 분석하였다. Morse와 Niehaus가 제시하는 혼합방법론 모델에 따라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양적 핵심데이터로, 의도적 표집방법에 의해 모집된 심층면접 대상자를 질적 보완연구로 사용하였으며, 양적 데이터가 구축된 후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속 설계방식을 취하였다. 양적 핵심데이터에서는 배우자가 있고 세 자녀를 키우는 기혼 여성(n=256)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를 제시하였고, 질적 보완연구에서는 총 15명의 참가자(아버지 3명, 어머니 12명)의 면접 결과를 주제분석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은 많은 수의 자녀를 원하여 다출산을 하거나, 특정성별의 자녀를 희망하여 셋째 출산을 하거나, 가족계획의 부재 또는 실패가 임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출산 및 양육에 관하여 다자녀 어머니들이 바라는 사회적 지원은 보육·교육비 관련, 소득공제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여건 개선과 사회복지시설의 질 향상과 같은 사회적 여건을 희망하고 있었다. 본 논문은 다자녀 가정의 연구가 부족한 국내 실정에서 혼합방법론을 이용하여 대상자가 느끼는 정책 욕구를 분석하였다는 차별성과 함께 다자녀 가정의 셋째 출산 과정을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주요용어:** 다자녀 가정, 다출산, 셋째 자녀 출산 요인, 다자녀 지원 정책, 혼합방법론

본 원고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내용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논문임.

\* 교신저자: 정승은, 한국교통대학교(sechung@ut.ac.kr)

■ 투고일: 2013.1.25    ■ 수정일: 2013.3.8    ■ 게재확정일: 2013.3.15

## I. 서론

한국 내 출산 관련 연구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출산력 증진을 위한 방법에 집중되어 있고,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다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출산력이라는 스펙트럼에서 저출산과 다출산을 이의 양 끝에 해당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다출산 가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기존의 출산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부분을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제시된 셋째 자녀 출산 관련 통계 수치를 보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통계청(2011)에 따르면 둘째 아 수는 감소한 반면 첫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서도 아이를 한 명만 낳거나, 아니면 셋 이상을 낳는 현상을 보도하며 ‘출산의 양극화’(조선일보, 2012)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농촌지역 중심의 셋째 출산 증가(중앙일보, 2012)를 다루며 다출산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다자녀(다출산)에 관한 국내 연구가 아직 기초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문숙재 외, 2007). 선행연구에서는 다자녀 부모와 외자녀 부모를 비교 분석하는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우가 있었으나(김정숙, 2006), 양적인 분석으로 다자녀 가정의 특성을 조사한 논문은 드물다. 이에 따라 주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과 접근 방식을 이용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 ‘다자녀(다출산)가정’은 셋째아를 출산한 가정을 의미한다. 이는 국내 기혼 가정의 기대자녀수가 2.2명이라는 점과(김정숙, 2006), 셋째 출산 후 제공되는 각종 혜택으로 인해 세 자녀 가정과 다자녀 가정을 동일시하는 일반적인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다자녀 가정을 통해 이들의 임신 및 출산 결정과정을 살펴보고, 다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희망하는 지원 및 사회적 여건은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출산연구의 다각화를 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임신 및 출산 경험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가?
2. 다자녀 가정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원 및 여건은 무엇인가?

이후 논문의 구성은 다음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제II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II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Morse와 Niehaus의 혼합방법론 연구 설계에 대하여 설명하며, 연구 대상 및 자료 분석방법을

기술한다. 제IV장에서는 연구 결과 제시, 마지막 제V장에서는 논의 및 차기 연구방향을 포함한다.

## II. 이론적 배경

기존의 연구는 다자녀 가정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출산력 및 추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논문이 주를 이룬다. 선행연구에서는 출산력 관련 요인으로 소득, 교육수준, 가사분담, 가족의식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소득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정이 상대적으로 자녀수가 많았으며(윤영혜, 2006; 박수미, 2005; 김성혜·김초강, 1991), 아들선호사상이 출산력 및 추가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명진, 2009; 박수미, 2005; 김성혜·김초강, 1991). 그 중 본고의 주제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중 다자녀를 이루게 된 계기, 다자녀 가정이 생각하는 자녀의 의미, 다자녀 가정에 관한 사회의 편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다자녀를 이루게 된 계기

강혜진(2009), 이해경(2011)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이 다자녀를 가지게 된 배경으로, 계획된 자녀 출산이기보다 피임의 실패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가 상당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응답자들은 모두 기혼자로 이미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음에도 소극적인 피임 또는 피임의 실패로 인해 자녀를 낳은 경우였다. 임춘희(2011)의 연구에서도 다자녀 가족 형성 동기를 살펴보았는데, 비의도적·무계획적으로 다자녀를 가지게 된 사례가 많다고 하였다. 문숙재 외(2007)의 논문에 따르면 질적 연구 참여자들은 애초부터 다자녀를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러운 적응 과정이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여성의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과 양육자의 낙천적인 인성이 특징으로 드러났음을 밝혔다.

피임 실패 이외의 다자녀 출산 배경에는 심리사회적 요인도 있다. 이해경(2011)은 다자녀 가정 어머니의 양육 배경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자녀에 대해 막연하게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 자녀를 부모의 분신으로 보는 경우, 가계의

가족 수를 늘리려는 대가족 형성 의지가 반영된 경우, 자녀를 통해 부부관계를 개선해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경우, 유년기의 경험과 삶의 과정에서 형제의 필요성을 느낀 경우, 주변인들의 셋째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권유가 있었던 경우 등이 다자녀 출산의 배경이라고 하였다. 또한 강혜진(2009)은 셋째 자녀 출산요인으로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남자 아이의 출산을 명시하였다.

## 2. 다자녀의 의미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자녀를 어떤 의미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출산 동기 및 양육 방식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다자녀 가족에서 자녀의 의미와 인적자본 투자 양상을 살펴본 문숙재 외(2007)에 따르면, 자녀의 의미는 인간과 신의 돈독한 관계를 규정짓는 상징, 행복을 세상에 과시할 수 있는 존재, 자신을 비취보는 거울이라고 하였다. 또한 다자녀라는 가족구성 자체에서 사회성, 협동, 독립성과 같은 인적자원이 창출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큰 자산이라고 보았다. 임춘희(2011)는 다자녀 가족 부부와 개인이 다자녀 가족의 건강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봄, 비의도적으로 다자녀를 출산하게 된 가정이 가족 규모가 커지는 것을 후회하기보다는 적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다자녀 가족의 장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언급한 다자녀 가정의 장점 및 건강성은 삶에 대한 강한 의욕, 행복한 가정에 대한 열망과 의지, 부부간의 정서적·신체적 친밀감과 강한 유대의식, 아버지의 가사와 양육행동 참여증가 등이었다.

## 3. 다자녀 가정에 대한 편견

다출산 가정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고, 이에 다자녀 부모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문숙재 외, 2007). 이들은 주변인들이 다자녀 가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도 다자녀를 낳으면 책임감 없는 출산이라는 사회적인 편견에 시달리기도 하였다(뉴스웨이, 2012). 김정숙(2006)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은 자신들이 많은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는 주변에서 다자녀를 갖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자녀 출산과 경제력을 직접적으로 연결 지어 생각하는 사회적 시선은 높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로 인한 것임을 추론하기도 하였다. 신효영(2009)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다출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를 키우는 데에 경제적 자원이 많이 투입되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자녀가 출생하여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자녀 한 명 당 지출되는 총 양육비가 약 2억 6천만원이 든다는 연구결과도 있어(김승권, 2010) 다자녀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시각은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인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도하지 않게 다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게 된 가정은 계획에 없었음에도 양육 과정에서 다출산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자녀 가정을 둘러싼 주위의 시선은 이들에게 부정적인 인식과 부담을 지우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연구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지원정책을 살펴본 연구가 드물고, 양적 및 질적 연구를 혼합하여 접근한 논문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자녀 가정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다자녀 가정이 된 계기와 필요한 사회적 지원에 대해 양적 및 질적 방법을 혼합하여 분석한 본 연구는 다자녀 가정의 현실을 파악하고 지원정책을 제안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두 가지 이상의 연구방법론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혼합방법론을 이용하였다. 혼합방법론을 사용하면 한 가지 연구방법을 통해서 놓칠 수 있는 이해나 통찰을 첨가할 수 있고,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결론에 대해 보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Denzin, 1989). 본 연구는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양적 핵심 데이터로 사용하고, 핵심 데이터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을 면접한 질적 보완 자료를 사용하였다. 즉, 양적으로 축적된 이차 자료만으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연구가 추상적일 수 있으므로 세부 맥락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덧붙이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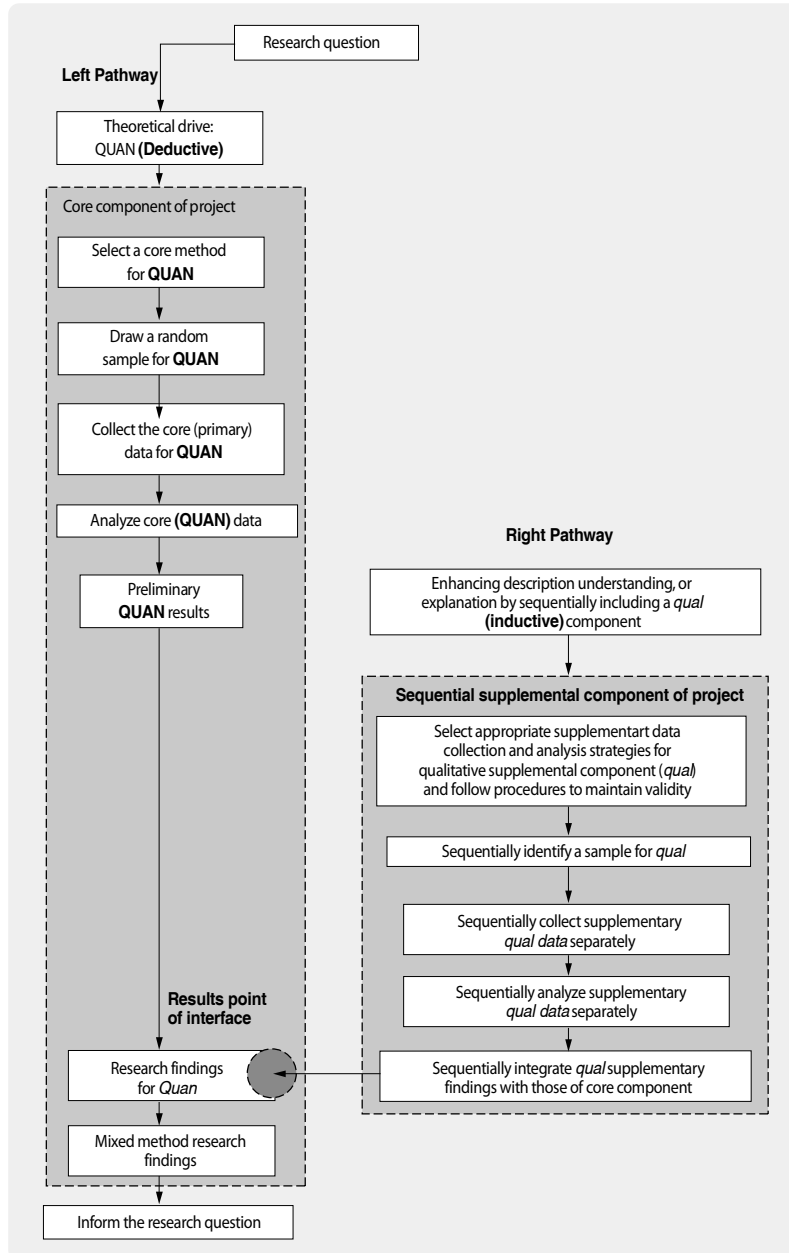
질적인 자료로 보완하는 연구 설계를 채택하였다. 연구 순서 면에서는 핵심 데이터가 조성된 후 보완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므로, 동시적이 아닌 연속설계 방식을 취하였다. Morse와 Niehaus(2009)에 따르면 혼합방법설계는 연구의 중심에 따라 핵심적인 요소와 보완적인 요소로 나뉘고, 연구의 순서에 따라 동시설계와 연속설계로 나뉘는데, 본 연구는 이 기준에 의하여 양적 핵심연구에 질적 보완연구를 수행한 연속설계 방식을 택하였다.

## 2. 표본선정 및 연구혼합지점

본 연구가 진행된 시점에는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표본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Morse와 Niehaus(2009)의 모델에 따라 새로운 질적 표본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질적 보완연구에 사용된 15명의 표본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들이 직접 자료 수집에 참여하여 구축한 것으로 본 연구의 양적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의 표본은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을 밝힌다.

표본선정과 함께 두 가지 연구적 접근을 어느 지점에서 혼합할지 결정하는 연구혼합 지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속설계를 사용하고 두 데이터의 표본출처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각을 독립적으로 분석한 후 결과에서 혼합하는 방식을 따랐다. [그림 1]에서는 오른쪽에 제시된 질적 보완연구를 왼쪽에 제시된 양적 핵심연구에 혼합하는 지점을 원으로 표시하였다(Morse & Niehaus, 2009).

그림 1. 연구혼합지점



주: Morse & Niehaus(2009). Mixed method design: principles and procedures. p.137에서 인용.

### 3. 연구대상 선정,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와 질적 면접조사를 활용하여 다자녀 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다자녀 가정의 유형, 희망하는 사회적 지원 및 여건에 대해 분석하였다. 양적 핵심연구의 대상은 만 20~44세의 기혼 여성 중 유배우 및 미혼 자녀 셋을 포함한 가정의 어머니였다. 연구 대상을 유배우 유자녀 가정으로 한정된 이유는 현대의 핵가족 구성원 중심의 표본을 반영하는 동시에 질적 연구 대상자와 유사하게 설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부모와 출생 자녀 이외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구주가 아버지가 아닌 경우, 자녀수가 네 자녀 이상인 경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기준에 의해 선별된 최종 양적 핵심연구 대상은 세 자녀를 둔 어머니 256명이다. 양적 핵심연구에서는 SPSS Statistics 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다중응답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세 자녀 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유형, 희망하는 지원 및 사회적 여건에 대해 분석하였다.

질적 보완연구에서는 다출산 가정의 부모를 심층면접하여 출산 경험, 자녀의 의미, 희망하는 사회적 지원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상자 모집은 연구 문제에 대해 가장 풍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추출한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력, 성별, 종교, 직업유무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총 15명의 참여자(아버지 3명, 어머니 12명)가 포함되었다. 심층면접을 위한 질문은 연구자들에 의해 양적 핵심연구를 기반으로 개방형 반구조적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으로는 자녀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는 본인에게 어떤 의미입니까?”였으며, 다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몇 명부터 다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2명 혹은 3명을 출산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출산 당시 주변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직장일과 가정일을 하는 데에 자녀수가 많은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적게 출산하는 경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마지막으로 희망하는 사회적 지원을 파악하기 위해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다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편안



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목적과 방법, 면접내용의 녹음, 익명성과 개인 정보의 비밀보장, 면접 참여의 중단 및 철회에 대한 자유 등에 관하여 문서로 작성된 연구참여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질적 보완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자녀 출산 및 양육 경험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폭넓은 이해를 얻기 위해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질적 자료의 주제분석은 연구결과를 정책적 측면에 적용가능하게하고, 광범위한 자료를 통해 심층적 기술과 설명을 제공해 주는 장점이 있다(Braun & Clarke, 2006). 분석은 자료 내에서 패턴화된 반응이나 의미를 확인 및 기술하고자 Braun과 Clarke(2006)이 제시한 6단계에 따라 이루어졌다.

## IV. 연구결과

### 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표 1>은 양적 핵심연구 응답자의 특성, <표 2>는 질적 보완연구 대상자의 특징을 나타낸다.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포함된 256명 중 78.5%는 ‘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주택 소유형태에 있어서는 62.5%가 자가, 25.8%가 전세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질적 보완연구에서는 의도적 표집방법에 의해 서울, 수도권 거주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읍’ 또는 ‘면’에 거주하는 참여자가 없었다. 양적 핵심연구에 나타난 세 자녀 어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37.04세, 아버지들의 평균 연령은 40.61세였다. 질적 보완연구에 참여한 세 자녀 가정의 아버지의 연령은 33~57세 사이였고, 30대가 5명, 40대가 8명, 50대가 2명이었다. 양적 데이터를 통해 세 자녀를 둔 아버지의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46.9%가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들은 30% 이상이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보완연구에 참여한 세 자녀 아버지들은 대체로 어머니보다 학력이 높았고, 어머니들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4명, 대학재학이 1명, 대졸이 9명, 그리고 대학원재학이 1명이었다. 양적 핵심데이터에 의하면 세 자녀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320.8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질적 보완연구에 참여한 15명의 세 자녀 부모들의 경제 수준은 주관적으로 응답한 결과로, ‘중상’이 1명, ‘중’이

5명, '중하'가 7명, '하'가 2명으로 나타나 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주관적 경제 수준은 중하에서 중간 수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양적 핵심연구 대상자 특성(N=256)

구분		명	%	구분		명	%
조사구	동	201	78.5	어머니의 취업여부	취업중	76	29.7
	읍	40	15.6		비취업(구직활동)	47	18.4
	면	15	5.9		비취업(비구직활동)	133	52.0
주택형태	자가	160	62.5	아버지의 취업여부	취업중	250	97.7
	전세	66	25.8		비취업(구직활동)	2	0.8
	월세	30	11.7		비취업(비구직활동)	4	1.6
어머니의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79	69.9	전체		256	100.0
	대학교 이상	77	30.1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자영업자	17	23.0
아버지의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36	53.1		고용주	1	1.4
	대학교 이상	120	46.9		무급가족봉사자	3	4.1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33	12.9		상용근로자	28	37.8
	200~300만원 미만	83	32.4		임시근로자	20	27.0
	300~400만원 미만	65	25.4		일용근로자	5	6.8
	400~500만원 미만	38	14.8		전체	74	100.0
	500만원 이상	37	14.5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	자영업자	76
전체	256	100.0	고용주			8	3.3
구분	평균	SD	무급가족봉사자			1	0.4
어머니 연령 (단위: 세)	37.04	4.40	상용근로자	138		56.6	
아버지 연령 (단위: 세)	40.61	4.98	임시근로자	10		4.1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만원)	320.87	-	일용근로자	11		4.5	
월평균 지출액 (단위: 만원)	249.85	-	전체	244		100.0	

표 2. 질적 보완연구 대상자 특성(N=15)

구분	성별	나이	배우자 나이	자녀연령 및 구성			직업 (배우자)	교육수준 (배우자)	경제 수준
				남	둘째	셋째			
1	남	40	37	11(여)	6(여)	10개월 (남)	사무직(전업주부)	대졸 (대졸)	중
2	여	46	50	19(여)	17(남)	16(남)	전업주부(건설업)	대졸 (대학원)	중상
3	여	55	57	27(여)	24(여)	19(여)	전업주부(공무원)	대졸 (대학원)	중
4	여	38	41	6(남)	2(남)	출산예정 (남)	전업주부(사무직)	대졸 (대졸)	중하
5	여	39	45	14(여)	13(여)	9(남)	사업보조(자영업)	고졸 (대졸)	중하
6	여	32	37	7(여)	3(남)	1(여)	전업주부(목회자)	대졸 (대학원)	중
7	남	47	47	21(여)	20(여)	13(남)	회사원(전업주부)	대졸 (고졸)	중하
8	여	34	35	8(남)	4(여)	6개월 (여)	회사원(회사원)	대졸 (대학원)	중
9	여	43	53	16(남)	14(남)	10(남)	대학원생 (사회단체활동)	대졸 (대졸)	중하
10	여	40	40	13(여)	9(여)	7(여)	강사(엔지니어)	고졸 (고졸)	중하
11	여	33	32	4(여)	3(남)	6개월 (여)	전업주부(목회자)	대졸 (대학원)	하
12	남	32	33	4(여)	3(남)	6개월 (여)	목회자(전업주부)	대학원졸 (대졸)	하
13	여	42	45	15(여)	12(여)	11(여)	전업주부(의사)	대졸 (대졸)	중
14	여	45	49	19(남)	17(남)	11(남)	전업주부 (개별화물)	대학재학 (고졸)	중하
15	여	46	49	20(남)	18(남)	16(남)	전업주부 (단순노무직)	고졸 (고졸)	중하

주: 의도적 표집방법에 의해 서울/수도권 거주 가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음(서울: 14명, 경기: 1명).

양적 핵심연구를 통하여 응답가구의 취업여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세 자녀 어머니의 29.7%가 취업 중이었고, 52.0%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질적 보완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12명이 전업주부로서 비구직활동 상태였다. 그들은 세 자녀 출산 후 양육을 위해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하였으며, 복직이나 재취업을 하기에 어려운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양적 핵심연구를 중심으로 취업 중인 어머니의 근로 형태를 살펴보면, 37.8%가 상용근로자, 27.0%가 임시근로자, 23.0%가 자영업자였다. 질적 보완연구에서는 심층면접에 참여한 어머니 중 3명만이 취업 상태였으며, 그들은 상용근로자(회사원), 임시근로자(시민단체 강사), 그리고 자영업자(남편의 사업 보조)로 구분되었다. 상용근로자인 어머니는 세 자녀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였는데, 세 번의 출산과 양육에 대해 직장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어 감사하면서도 승진과 관련해서는 불편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양적 핵심연구를 통해 세 자녀 가정의 아버지의 근로형태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가 56.6%, 자영업이 31.1%였다. 반면 질적 보완연구에 참여한 세 자녀 아버지는 대부분 상용근로자이고, 자영업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구 기준으로는 외벌이에 해당되는데, 아내는 양육을 전담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하기 어렵고, 남편 혼자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엔 제 의사가 아니었죠. 저는 직장생활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맡길 데가 없었어요. 애를 맡길 방법이 없어서 휴직을 했는데, 하다보니 복직을 못한 거지. 그래서 그냥 계속 지금까지(셋째 자녀까지) 쪽 전업주부로 남아있지. 계속 사회생활을 다시 하고 싶어하는 욕심은 계속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애를 맡길 데가 없다라는 거. 결국은 셋째가 어느 정도 학교까지 가면은 그때 가서라도 파트타임이라도 다시 찾아야 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취업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휴직은 연차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진급이나 이런 것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 스스로 아 이렇게 지금 몇 번째 쉬었는데 과연 내가 그 직급을 받아도 될까? 뭐 이런 것도 조금조금 걱정이 되고, 승진문제... 아 내가 애가 셋이니까 뭐 그냥 조금 다니다가 힘들면 그냥 지가 알아서 나가서 떨어지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제가 제 스스로 불편해지는 마음은 조금 있어요.

출산하고 회복한 다음에 아내가 일을 나가야지 경제적인 것으로 들어가는데, 연년생으로 낳은 저희 같은 경우는 회복한 다음에 둘째 낳고, 둘째 낳고 또 회복하려고 하면 셋째 낳으니까.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있으니까 너무 들어가는 역량이 많이 크니까요. 부모로서 이제 아내는 아예 전담을 가사에 거의 하지 않으면 어, 힘들지 않나. 네 오히려 뭐 베이비시터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면 오히려 돈이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왜, 책임감이 좀 마음에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또한 지출 관련하여서는, 세 자녀 가정은 월평균 249.8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보완연구에서는 세 자녀 가정의 월평균 지출액에 대한 질문은 없었으나 대부분의 세 자녀 부모들은 한 자녀, 두 자녀일 때보다 세 자녀를 키우면서 생활비가 더 많아지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하였다.

먹는 거나 뭐 생활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둘에 하나 보태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양이 들어가요. (중략) 그러니까 딱히 교육비라기보다는 먹고 입는 게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다 돈이잖아요. 아이가 학교를 가기 때문에 교통비도 있어야 되고, 밥을 또, 늦으면은 간식도 먹어야 되고, 그런 것들도 다. 머리도 잘라야 되고, 화장품도 발라야 되고, 여드름 나면 피부과도 가야 되고, 어떤 애는 또 안경도 바꿔줘야 되고, 그게 벌써 한 아이가 더 생기다 보니까 이게 계산할 수 없는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옷도 사줘야 되고, 양말, 속옷 뭐... 거기다가 먹는 것도 둘이 먹는 것하고 셋이 먹는 것하고는 이게 양이 엄청나요.

## 2. 다출산 경험

본 연구에서는 첫째·둘째 자녀를 양육하며 셋째를 출산함으로써 다자녀 부모가 된 가정을 몇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표 3>에서는 셋째자녀 희망여부와 특정성별 선호도를 기준으로 응답자들을 나누었는데, 이들을 집단 A~D라고 명명하고 각각의 유형을 양적 및 질적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3. 다자녀 가정의 구분

가. 다자녀를 원한 가정 (n=83) [이상자녀수≥3, 실자녀수=3]		나. 다자녀를 원치 않은 가정 (n=142) [이상자녀수=2, 실자녀수=3]	
A. 성별 선호 없음 (n=42)	B. 성별 선호 있음 (n=37)	C. 성별 선호 없음 (n=96)	D. 성별 선호 있음 (n=43)
*무응답이 4명임		*무응답이 3명임	

주: 전체 256명의 응답자중에서 3명은 이상자녀수가 0이라고 응답하였고, 23명은 이상자녀수가 1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5명은 이상자녀수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음. 이들 총 31명의 응답자들은 위의 구분에서 제외되었음.

### 가. 다자녀를 원한 가정

다자녀 출산을 원했던 가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상자녀수와 실제자녀수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포함된 256명의 세 자녀 어머니들 중 1/3이 이상자녀수로 셋 이상을 꼽았는데, 이들은 많은 수의 자녀를 원하였기에 다출산을 이행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자녀 출산 시 자녀 성별에 있어 선호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성별선호가 없었던 응답자가 42명, 성별선호도가 있었던 응답자가 37명으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 1) 집단 A: 성별선호 없이 다자녀를 원한 가정

성별선호도가 없이 다자녀를 원한 가정(n=42)은 [그림 2]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이들은 자녀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자녀가 많은 것을 선호하는 집단이므로, 자녀 성별 난에 '남/여'로 표기하였다. 많은 자녀를 원했던 다자녀 가정에 관한 결과는 질적 자료에서도 세부적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부모 중 일부는 다양한 이유를 거론하며 자녀가 많을수록 좋다고 하였다. 본인이 외동으로 자란 경우나, 형제자매가 있어도 터울이 많아 형제자매간 사이가 친밀하지 않았던 성장배경이 있었고, 부부 모두 또는 남편이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 후 많은 자녀를 원했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녀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자녀의 정의를 4~5명 이상의 자녀라고 하였다. 즉 이들은 추가 자녀를 원했기에 임신을 계획하였고 셋째 출산이라는 과정을 수행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저하고 누나하고 단 둘이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한 6년 차이 나거든요. 너무 외로운거  
죠 초등학교 다닐 때 누나 고등학교 다니고, 제가 고등학교 갈 땐 누나는 이미 사회인이  
니까 집에서 볼 일도 거의 없고, 네 그래서 거의 혼자 사는 느낌이 강했어요. (중략)  
남자라서 그런지 제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내심 하고 있었는  
데요. 마음 같아서는 4명 낳고 싶었는데.

두 명은 너무 적고, 셋, 넷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다섯 명 이상 정도면 다자녀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우리 둘이서 남편과 저랑은 다섯 낳자, 못 낳아도 애들을  
되게 좋아했구요. 남편도 아이가 많은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좋아해서 자녀를 많이 낳기로 계획한 이들도 최종출산을 셋째까지로  
한정짓게 되었다. 다자녀를 원했던 어머니는 세 번의 계속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신체적  
허약함을 느끼게 되었고, 셋째 자녀가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결국  
부모의 스트레스, 임신연령이 높아지면서 노산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부 합의하  
에 더 이상의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하였다.

남편은 또 많이 원하고, 그러면은 한번 낳아볼까? 이런 생각 들어서 이제 생긴 아이거든  
요. (중략) 지금도 (남편은) 원래 자식 욕심이 많아요. 지금도 제 입에서 오케이만 떨어  
지면 넷째도 좋고 다섯째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몸이  
너무. 이제 더 이상의 임신은 제가 너무 완강히 거부를 하니까 그렇지, 지금도 막 가만히  
가끔씩 얘기하는 것 보면 막 다섯까지도 낳고 싶어 하고 막 그래요.

셋째를 가지려고 애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한테는 둘째까지가 보다, 나이들도 있고  
하니까 포기하자 그랬는데 딱 애가 들어섰던 거죠. 근데 이제 아이가 신생아 때, 태어나고  
데리고 왔는데 일주일 안에 굉장히 뭐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신장  
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기 약물을 투여해야 되는데 그 약물이 만약에 안  
들으면 애는 평생 신장 투석을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느꼈던  
게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걸까, (중략) 더 낳으면 우리 때문에 아이가  
어떤 결함을 가지고 태어날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이제 들었어요.

## 2) 집단 B: 성별선호가 있고 다자녀를 원한 가정

집단 B에 해당하는 이들은 셋째 출산에 있어서 특정성별의 자녀를 원했던 응답자들로 (n=37), 두 가지 성별의 자녀를 다 키우고 싶은 경우에 해당한다(그림 2 참조). 집단 B는 첫째·둘째 자녀가 아들-아들 혹은 딸-딸이어서, 셋째 자녀는 다른 성별의 자녀를 출산하기를 희망하였다. 이들 모두가 원하는 성별의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결과를 가질 수는 없으므로, 이들 중에는 아들 셋 또는 딸 셋을 낳게 되는 가정도 발생한다. 하지만, 출산 의도 면에서는 셋째 자녀의 성별에 대해 선호도가 있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렇다면 셋째자녀의 성별을 희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자녀를 원한 83명의 응답자(집단 A와 B) 가운데에 첫째·둘째 자녀의 성별이 남-남인 경우는 18.0%이고, 여-여인 경우는 41.2%였다. 특정성별의 셋째를 원했던 집단 B에서도 첫째·둘째 자녀의 성별이 남-남인 경우는 21.6%이고, 여-여인 경우는 45.9%로 후자가 두 배 이상 많았다. 양적 데이터에서는 이들의 출산의도와 임신 계획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변수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질적 보완연구에 의하면 다자녀를 원했고 동시에 특정성별의 셋째 출산을 희망했던 이들은 모두 첫째와 둘째가 딸이었고 이어서 셋째로 아들 낳기를 원한 경우였다. 즉, 본 연구에 참가한 응답자 가운데 첫째와 둘째가 아들이기에 셋째는 꼭 딸을 낳고자 노력한 이는 없었으므로, 분석 내용도 셋째아의 성별로 남자를 선호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질적 자료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부모들이 남아를 출산하고자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두 딸을 둔 어머니의 경우 집안의 큰 며느리로서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고, 집안의 다른 손자나 증손자를 유난히 예뻐하는 시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을 낳으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받아들여 아들을 기대하면서 셋째 임신을 계획하게 되었다. 또 다른 어머니는 친정어머니가 아들을 낳지 못한 딸의 모습을 측은하게 여겨 셋째 자녀를 갖도록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동네에서 작은 말다툼이 벌어졌을 때 “너는 아들이라도 있냐?”라며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황의 전후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두고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딸만 둘을 둔 어머니들은 아들 출산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을 설득시켜 마지막 기회로 세 번째 임신을 시도하였다. 셋째 자녀로 아들을 낳으면 좋은 것이고, 딸이어도 더 이상 임신을 계획하지 않기로 부부 간에 합의를 보았다.



은근히. 부모님보다 할머니로부터 부담감을 느낀 거 같아요. (중략) 저 그냥.. 사촌(남자)이지만 그 놈 하나 잘 키워서 그놈을 장손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었는데.. 집사람한테는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결정하는 과정까지 오래 걸렸기 때문에 완고하더라고요. 셋째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나는 둘만 낳고 끝내려고, 아들이든 딸이든 둘만 낳고 끝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그 집사람한테는 이제 무언의 압력 비슷한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첫째 이제 장모 쪽에서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남자 집안의 그.. 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성으로써는 남자 애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자주 하신 것 같고 (중략) 정말 니가 원한다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 더 낳고 이제 끝내자 라고 해서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들이 나왔고, 그래서 그걸로 끝을 봤어요.

집단 B는 특정성별을 원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셋째 임신을 계획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특정성별을 위해 추가 출산을 하기로 결심을 세운 후에도 아들을 낳기 위한 실천 방법이나 근거에 있어서는 비과학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대대로 남자가 많은 집안”이기에 이번엔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크고, 둘째 자녀와 5~7년 정도로 터울이 길면 다른 성별의 자녀를 임신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딸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들도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터울을 길게 하면 성별이 바뀔 확률도 높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아, 낳아야 되겠다 언젠간 하나를 더 낳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생각(셋째 임신)을 하고 있었죠.

저희 집안이 대대로 남자가 많은 집안이에요. (중략)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해보고 딸이면 진짜 포기하고 아들이면 좋은 거다 해서 셋째를 갖게 된 거구요. 그래서 텀이 5살보다 많이 나요.

집단 B를 통해 셋째로 남아를 원했던 이유와 남아 임신 계획 과정에 대하여 살펴본 후 셋째 출산 결과에 따른 반응을 분석하였다. 아들에 대한 기대로 추가 임신을 계획했던 부부가 남아를 낳은 경우에는 셋째 출산으로 인해 커다란 기쁨을 경험하였다. 특히 시댁과 친정부모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을 낳은 자신을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였다.

아버님이 이제 확연히 달라지셨다, 그야말로 딸 둘이 있을 때는 개네들 분유도 한 통 안사시던 분이 아들 낳았다고 하니까 분유를 사들고 오시고, 지금까지도 아버지는 그 녀석을 자주 괜히 이렇게 계속 케어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리고 막 주변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아들을 안 낳으면 예, 큰일날뻔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너무 기뻐라 하시니까 저도 네 약간 기분은 좋았죠.

반면, 아들을 낳고자 셋째 임신을 계획했지만 딸을 낳게 된 경우에는 남편과 시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모두가 낙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응답자는 임신 기간 동안 산전관리의 하나인 양수검사를 통해 여아라는 사실을 들었는데, 남편이 인공유산을 권유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은 채 힘겹게 임신을 유지했다고 회상하였다. 한 어머니는 시어머니로부터 딸 셋 다음에는 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니 넷째를 임신하라는 권유를 받기도 했지만, 더 이상의 임신은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심했다. 이들은 세 명의 딸을 키우는 과정이 만족스럽지만, 어른들 앞에서는 내색을 하지 않는다 하였다.

시부모님이 (손자를) 원하는 거니까. 그런 (아들 낳을) 책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셋을 낳아 봐서 딸이면 더 이상은 뭐 내가 할 몫은 다 한거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는 더 낳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애기 아빠는 아들이면 낳고 딸이면 낳지 말자는 거예요 저한테. 임신 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임신하고 나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셋째를 가져서 양수검사를 했는데 이제 딸이라는 걸 안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상처 많이 받고, 셋째 가졌을 때 굉장히 속상한 일이 많았어요. 이 애가 태어나서 어떤 애가 될 질 모르는데 쉽게 그런 소릴 한다는 게 전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안하고 그냥 무조건 낳아봐서 내 책임만 다하자 이런 생각을 생각했지.

셋째가 딸이다 보니까, 시부모님도 많이 실망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이제 넷째면 아들이 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좀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나 넷째를 낳고 싶은 생각은 1%도 없고, 네 그랬었죠.

저는 만족해요. 대외적으로 저희 부모님이나 그런데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만, 저는 속으론 정말 만족해요. 딸 셋인 게. 전 아들이 별로더라고요. (중략) 저한테는 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저희 딸한테, 저희 딸들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저는, 저는 만족해요.

## 나. 다자녀를 원하지 않은 가정

### 1) 집단 C: 다자녀를 원하지 않은 가정

셋째 자녀를 원하지 않았는데 다자녀 가정을 이루게 된 이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희망 자녀수는 둘이었으나 셋 이상을 출산한 응답자를 살펴보았다. 추가 출산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피임을 하지 않았거나, 피임이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이들은 두 번의 출산 경험이 있고, 가임연령에 있는 기혼자이므로 가족계획 실천 여부가 중요하다.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는 둘째 출산 후 피임을 하였는지에 대한 변수가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현재 피임여부를 토대로 둘째 출산 후 피임여부를 유추해 보았다. <표 4>는 셋째를 원치 않았던 집단과 전체 세 자녀 가정의 피임 실태를 보여준다. 두 집단 모두에서 피임중인 이들은 62%, 피임을 하지 않고 있는 이들은 37%를 차지하였다. 즉, 셋째 자녀 이후에도 피임을 하지 않는 이들이 1/3을 넘는 수치를 통해, 둘째 자녀 출산 이후에도 피임을 하지 않았던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추가 출산을 원하지 않았던 집단 C는 셋째 출산 자체를 의도하지 않았기에 성별 선호가 없었다. [그림 2]의 집단 C는 이들의 세 자녀 출산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므로, 세 자녀의 성별을 '남/여'로 표기하였다. 이들은 성별과 무관하게 추가 출산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셋째의 임신이 매우 당황스러웠고, 인공유산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 없던 임신과 임신 유지에 관한 변수는 양적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 과정을 질적 결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다자녀 가정의 피임 실태

구분		다자녀를 원치 않았던 집단 (C, D)		다자녀 가정 전체 (A, B, C, D)	
귀하와 남편은 현재 피임을 하고 있습니까?	예 (피임중)	88 (62.4%)	피임이유로는 96.6%가 추가출산을 원치 않아서라고 함	159 (62.6%)	피임이유로는 95.6%가 추가 출산을 원치 않아서라고 함
	아니오 (피임 안함)	53 (37.6%)	-	95 (37.4%)	-
전체		141 (100%)	다자녀를 원치 않았던 집단의 총 수는 142이나 무응답 1명 있음.	254 (100%)	다자녀 가정 전체의 총합은 256이나 무응답 2명 있음.

#### 가) 추가 자녀를 원치 않음

이들의 희망자녀수는 2명이었다. 자녀가 1명이면 너무 외로울 것 같고, 아들, 딸에 대한 성별 선호는 없지만 “남들도 다...”, “사회적 통념상” 2명의 자녀가 좋다고 여겼다. 따라서 이들은 둘째까지 낳은 후 더 이상의 출산을 원하지 않고 두 명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이때의 기준은 결혼 후 부부의 의견을 모아 계획을 세운 결과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자녀수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임신을 하게 되니 응답자들은 셋째아가 특정성별이 되었으면 한다는 기대보다는 자녀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에 양육 및 교육 부담을 느꼈다.

사실 두 명이 좋다, 세 명이 좋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사실 해 보질 못했는데, 막연하게 그래도 하나보단 둘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사실 너무나 많이 접하는 표현이잖아요, 그 문구 자체가.

이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며, 둘째까지는 남 기르는데 그냥 기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셋째를 낳게 되니까 어... 이제 정말 애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 나) 피임을 하지 않음

다자녀 부모 중에는 부부 간에 셋째 임신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둘째 자녀 출산 후 셋째 자녀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피임방법을 실행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또한 특정 피임 방식을 사용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실행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임신이 되기도 하였다.

셋째를 계획 없이 낳았죠. 그러니까 둘째가 7개월 때 생겼거든요. 한창 키우기 바빴을 때, 그때 덜컥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계획 없이, 셋째를 낳아볼까 라는 생각이 없이. 그렇게 셋째가 생겼고

이렇게 한 번 자면 애가 생기더라고 너무 신기하죠? 낳자도 이렇게 어쩌다 한번 (부부 관계를) 하니깐 그건(임신여부를) 알잖아요. 그래도 낳자를 보면서 이렇게(피임을) 하질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바로 애가 생기더라고 바로바로 진짜로.

둘째 낳고 우리 이제 그만하자, 아이는. 그래서 둘이 그때는 얘기가 되고 마음먹었었어요. 그래서 남편 정관수술을 하자, 해가지고 남편도 오케이 해가지고 우리 남편도 잘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그때 한창 바쁜 일이 많아서 이거 딱 끝나고 하자, 끝내놓고 하자 했는데, 어... 신경을 썼는데 막 이상한 거예요. 울렁울렁 거리고 막 남편이 체했다, 막 낳자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아이가 생길 나이가 아니 거예요, 기간이.. 병원에 갔는데 근데 제가 생리를 끝난 지 딱 일주일 밖에 안됐을 때 간 거예요. 근데 초음파를 보니까 아기집이 있는 거예요. 왔는데 남편이 아니지? 아니지? 그래요. 근데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 다) 피임이 실패함

셋째 임신을 원하지 않았던 부부 중에는 피임을 했는데 임신이 된 경우도 있었다. 남편의 영구적인 피임으로 임신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한 부부는 임신 소식으로 인해 잠시나마 부부간에 의심과 오해를 가지기도 하였다.

남편이 이제 수술을 했어요. 정관수술 했는데, 그것을 그냥 한번 수술하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 몇 개월은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 근데 그 관리를 안 한 게 남아있는 바람에 생긴 게 셋째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때는. 일단 신랑이 자기는 수술을 했는데 이놈의 마누라가……오해를 샀어요, 의심을. 그래서 날아보면 알 것 아니냐, 결론은 그거죠.

#### 라) 계획 없던 임신으로 당황함

원하지 않았던 셋째를 임신한 응답자들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둘째 출산 후 생리가 불규칙한 것으로 여길 만큼 둔감하였다. 이들은 계획하지 않은 셋째 임신에 대해 무척이나 당황하고 부담스러워했으며 철없는 행동이었다고 표현하였다. 친정부모나 시부모의 반응은 셋째를 임신한 딸, 며느리가 앞으로 힘겨운 육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다고 하였다. 주위 사람들의 반응 또한 “부자인가봐”, “셋을 어떻게 키우려고”라는 정도여서, 응답자들은 세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막내를 임신해서 제가 하혈을 했던 건데, 저는 그게 그냥 아이가 둘째를 낳고 나니까 생리를 불규칙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4개월, 5개월이 되도록 몰랐어요. 세 번째 임신을 하고 나서는 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계획에 없던 일이라서 당황스러웠었고, 또 음, 우리 이제 애 이빠도 혼자 서울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애들을 셋을 키운다는 게 굉장히 가장으로서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임신을 했을 당시에는 ‘넌 니 생각 안하니?’ 오히려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저희 외가, 그러니까 부모님, 그리고 시부모님 다 두 분 다 뜬해 하셨거든요. 셋째를 낳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돈 많다고 그러지요.

무식하다고 지금은 좀 연예인들 엄청 자녀를 많이 낳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돈이) 없는 사람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맨날 먹고 할 일 없으니까……이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마) 인공 유산을 고민함

임신계획 여부와 상관없이 첫 번째는 “결혼했으니까” 당연한 임신이었고, 두 번째는 “남들도 다... 하나는 외로우니까”라는 이유로 지지받을 수 있는 무난한 임신이었지만, 세 번째 임신을 확인한 후에는 출산에 대해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다. 계획 없던 셋째를 임신한 부부는 임신 소식을 듣고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다.

그리고 이 나쁜 마음인데 정말 셋째 아이를 안 낳을 생각까지 했었어요. 남편하고 일주일동안 전쟁을 치뤘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남편하고 트러블이 오래 못 가잖아요. 그렇게 안 좋은 반응은 아이 정서에 안 좋겠구나 싶어서 제가 그냥...(낳기로)

그때는 정말 일주일 넘게 거의 매일 울었어요, 임신한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남편한테 계속 이거(임신)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이제 이거(아이)를 낳아야 되냐 낳지 말아야 되냐 여기까지 고민을 했었거든요.

남편도요, 셋째가 있다고 하니까 고민하더라고요. 되게 좀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런 올바른 사람인데 둘째까지는 되게 좋아했어 그런대로 근데 셋째까지라고 하니까 일주일 고민하더라. 고민한다는 건 뭐예요? 안 낳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좀 고민하더라고요. 우리가 막 형편이 여유롭고 이렇지는 않죠. 부담감, 무게감이 더 커지니까 남자 입장에 서는. 시댁도 있지. 셋째 태어나면 아무래도 둘째보다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니까.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많은 경우에 있어 셋째 임신을 확인하고 나서 출산 여부를 두고 갈등했을 때 최종적으로 남편의 결정에 따라서 임신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친정부모의 격려와 조언에 따라 출산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셋째도 사실 우연히 생겼는데, 많은 고민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주위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어.. 남편하고 얘기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었다가, 결국엔 제가 남편 설득에 넘어가서 셋째까지 낳자 이렇게 됐어요.

제가 계속 남편한테 생각해 보라고 일주일 넘게 서로 고민을 했는데, 남편이 딱 한마디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낳지 말자고 결론을 내서 당신한테 그러면 애를 떼자 하면 당신은 땀 거냐고. 어차피 생긴 아이니까 감사하게 받아들이자고...

저희 남편이 친정어머니랑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다 지 먹을 것 타고 난다고 엄마는 그랬고, 저희 남편은 이제 은근히 셋이니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 2) 집단 D: 다자녀를 원하지 않았으나, 셋째 출산시 특정성별을 선호한 가정

다자녀 가정에는 애초에 셋째 자녀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임신을 하게 된 이상 특정성별을 선호하게 된 경우도 있다(그림 2의 집단 D 참조). 양적 데이터에서는 셋째를 원하지 않았던 집단의 1/3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이 가족계획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 및 자녀 성별을 분석해 본 결과, 전원이 아들 1명, 딸 1명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1남 1녀인 경우는 32%였고 나머지는 모두 아들 둘 혹은 딸 둘을 두고 있었다. 질적 연구결과에서는 이미 아들 둘을 출산하여 셋째는 꼭 딸을 낳고 싶어 하는 가정은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딸 둘을 키우며 셋째는 꼭 아들을 낳고 싶은 경우만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집단 D에서 두드러지는 주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 가) 아들 낳을 기회로 삼음

원치 않는 셋째를 가지기는 하였지만 위로 두 딸을 가졌거나 둘째·셋째 간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경우는 셋째가 아들이길 바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산전 진찰에서 딸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출산 당시까지 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친정 엄마 같은 경우는 아들이 없으니까 딸만 둘을 낳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번에는 아들이지 않을까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아들에 대한 욕심 별로 없었어요. 애 아빠는 굉장히 아들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한 편이었죠. 자기도 아들이지 않을까 하고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른들은 좋아하셨어요.



이제 아들이나 아나카 상당히 좀 예민했었어요. 그런데 애가 딸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뱃속에서 성별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 알았었어요. 그런데도 시댁에서도 아들을 기대하고, 친정에서도 아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어... 딸이겠구나 하면서도 아...아들이지 않을까? 혹시 아들이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고 마지막까지 낳았는데, 애가 딱 태어났을 때 주변이 조용한 거예요. 애 아빠가 이제 옆에 있었는데, 애 아빠가 얘기를 해줬어요. 여자애, 딸이라고.

#### 나) 임신 유지

다자녀를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셋째를 임신한 부모들은 임신 중단과 임신 유지 사이에서 임신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태내에서 성별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아기가 큰 상태였고, 종교적으로 인공유산이 큰 잘못이므로 출산을 결정하기도 했다. 셋째 임신을 유지하는 동안, 첫째와 둘째 임신과는 달리 남편과 함께 아이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는 등 태교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였다.

얘기를 계획에 없었는데. 그랬더니 너무 놀래갖고 선생님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들이라서 반가운 게 아니라, 아들인 것까지 알 정도가 됐으니 이걸 이제 절대적으로 낳아야 된다는.. 성별까지 이제 다 돼있고,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히 다 갖추어진 건데,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낳아야 되는데... 아 이제 걱정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종교가 있어서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많이 저를 다독거리면서 노력을 했었고요.

#### 다) 희비가 엇갈림

반면 원치 않는 임신이었지만 추가 출산 기회를 아들 낳을 기회로 보고 특정성별의 셋째 자녀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다시 셋째로 아들을 낳은 경우와 낳지 않은 경우로 나뉘게 된다. 셋째를 원하지 않았지만 두 딸에 이어 아들을 낳은 부모는 자신뿐 아니라 친정부모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셋째는 아들이어서 든든하고, 막내여서 예쁘기도 하지만 나이 들어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안쓰럽기도 했다. 또한 첫째와 둘째 자녀를 키우면서 얻은 육아의 경험을 살려 더욱 잘 키워보겠다고 결심하였다.

셋째를 약간 수월하게 낳았거든요. 그리고 (아들 낳아서) 저보다는 엄마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가.

막내는 남자 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터울이 있게 내가 서른 살이 좀 넘어서 낳은 아인데, 너무 이쁜 거예요. 또 다른 기쁨을 주는 아이구나. 여태까지 지나왔던 시행착오, 내가 이렇게 아이 키우면서 했던 시행착오를 조금 이렇게 피해가면서 잘 키우려고 했던 아이? 그래서 뭐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잘 키웠으면 좋겠는데, 항상 안쓰럽고, 막내는 좀 마냥 어리게만 보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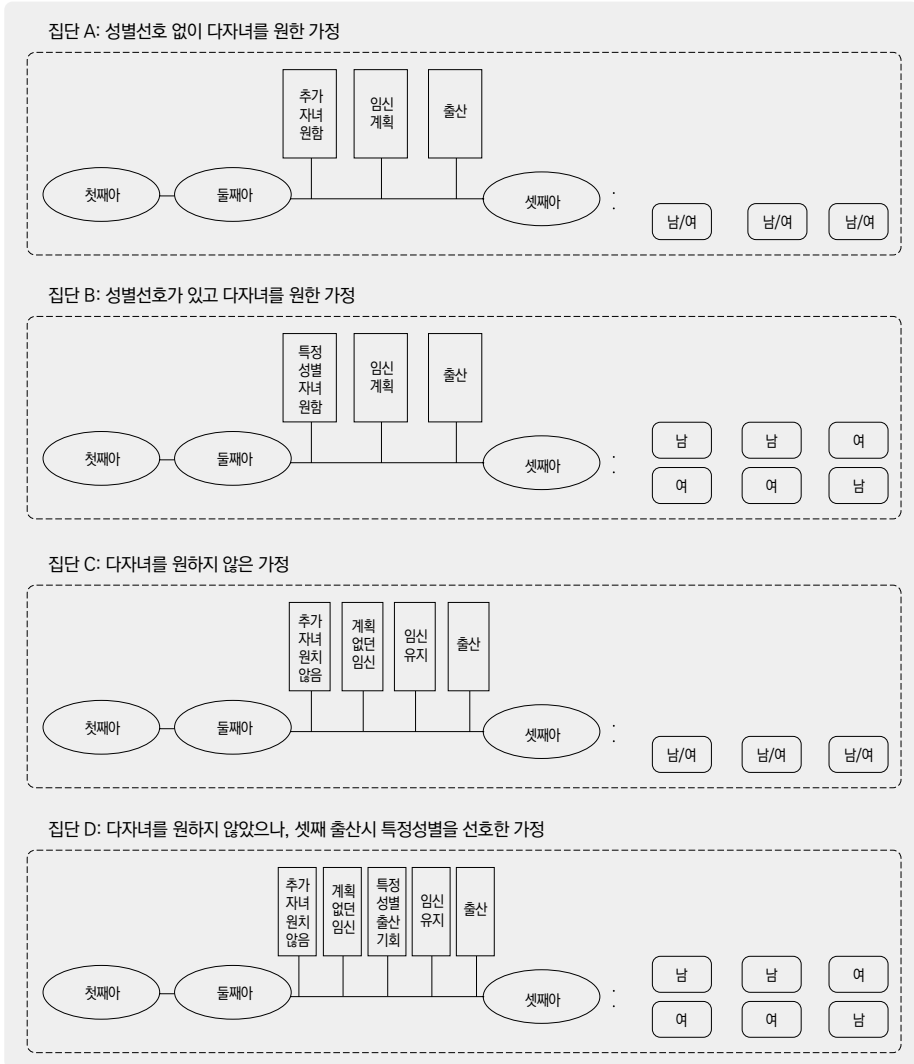
첫째 둘째에 이어 셋째로 딸을 낳은 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해 못내 아쉬워했으며, 아들을 낳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다. 셋째 딸을 출산한 응답자의 친정어머니 역시 서운해 했으며, 딸의 시댁 어른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렇게 솔직히 다들 힘들게 낳는데 딸이면 어쩔고, 이들이면 어때요? 소중한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나름 아쉽기도 했죠.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리고 셋까지 이렇게 낳을 것이었으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볼걸 이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셋째는 남자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까. 그쪽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니까 약간 기대치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딸을 낳고 나니) 저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옆에 그 친정엄마가 굉장히 서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도 바로 오지 않았었고 그때는 이제 시어머니가 올라와 계시니까, 어머니 눈치도 보여서 세 번째 딸인데 저렇게 가나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이상과 같이 다자녀를 둔 가정은 셋째를 원했는지의 여부와, 특정성별을 원했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네 가지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의 경험은 [그림 2]를 통하여 도식화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은 아들을 낳아야 하는 책임을 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 실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2. 다자녀 가정의 셋째 출산 의도 및 과정



### 3. 다자녀 가정이 희망하는 사회적 지원

세 자녀 가정의 어머니들이 희망하는 사회적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포함된 설문 문항 중 “귀하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데 어떠한 사회적 지원이 도움 될 것 같습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주관식으로 답하였고, 조사원은 설문지에 제시된 20여 가지의 응답항목 중에 해당되는 것을 표기하였다.

표 5. 다자녀 가정 어머니들이 바라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종류

영역	구분 지원의 종류	응답전체*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보육·교육비 지원	- 보육비지원 - 방과 후 학교 지원	235 ( 93.2)	162 ( 63.5)	73 ( 29.7)
지출 경감	- 다자녀 가정 소득 공제 -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경감	74 ( 29.7)	25 ( 9.8)	49 ( 19.9)
주택 지원	- 다자녀 가정 특별 공급 및 자금 대출 - 신혼부부 특별 공급 및 자금 지원	65 ( 26.0)	28 ( 11.0)	37 ( 15.0)
보육 서비스 강화	- 종일제·시간제 확충 - 직장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 출산 후 산모도우미 지원	81 ( 32.5)	27 ( 10.6)	54 ( 22.0)
직장 여건 개선	- 근로 형태 유연화 - 경력 단절자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23 ( 9.3)	4 ( 1.6)	19 ( 7.7)
기타	- 산전·불임 비용 지원 - 산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급여 지원 - 육아 휴직 등	23 ( 9.2)	9 ( 3.5)	14 ( 5.7)
계		-	255 (100.0)	246 (100.0)

주: 1) \*순위형 다중응답분석을 통하여 가중치를 1순위에 200%, 2순위에 100%를 부여하여 분석하였음.  
2) 1순위에는 무응답 1명, 2순위에는 무응답 10명임.

<표 5>는 응답결과를 분야별로 나누어 리코딩 한 후 분석한 수치를 나타낸다. 응답자들이 원하는 사회적 지원의 종류를 살펴보면(1순위 기준,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63.5%가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자녀 가정의 어머니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지원은 학령기 이전 연령의 자녀

를 위한 보육비 지원과 학령기 자녀의 방과 후 학교 지원이었다. 특별 공급 및 자금 지원과 같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 지원이 11.0%로 그 뒤를 이었고, 직장 여건 개선이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위에서 제시된 다자녀 가정이 희망하는 사회적 지원은 질적 보완연구 결과에서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의 경험에 비추어 현재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 사용을 원하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표현한 사례, 개선 요청이 제기되는 사례 등을 <표 5>의 결과와 맞물려서 소개하기로 한다.

### 가. 보육 시설 이용을 통해 양육 부담을 완화

질적 면접에 참가한 이들 중에는 보육비를 지원받아 2세 미만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이 있었다. 응답자는 남편이 육아에 참여하지 않고 바깥일만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 혼자 세 자녀를 돌보기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 연령에 맞게 충분히 놀아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막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시간에 어머니는 다른 큰 자녀를 돌보거나 밀린 집안일을 하기도 하며, 병원에 가는 등 시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제가 보내야 되겠다 마음먹은 게 집에서 제가 하루 종일 데리고 있어도 아이 그 마음 잘 못 채워주더라고요. 저도 이것저것 막 할 일이 많으니까 아이는 뭐 놀아줘 하는데 놀아주긴 해도 아이의 반도 못 채워주고요... 그러니까 아이도 좀 몇 시간 놀고 나면 너무 지루해 해요. 밖에 나가는데, 또 동생이 이제 깨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같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답답해하고, 제가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도 아기 그 큰 아이와 한참을 이것저것 경험하고 싶고, 뭐 놀이나 그런 마음을 충족을 못 시켜줘서 차라리 거기 보내는 게 더 아이한테 좋겠다 싶어서, 네 보내는 게 낫겠다 싶었죠.

또한 보육시설의 등록이 무상으로 지원되어 자녀를 시설에 보내기는 하지만, 특별활동과 관련된 추가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었고,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의 경우 대기자 명단이 길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제한된 보육시간으로 인해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경우에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하였다.

둘째 같은 경우는 다섯 살이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많이 해요. 특별비를 받으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어린이집에다) 제가 한 달에 내는 돈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사교육비죠?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게 한 십오만 원 돈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서 물론 전업주부들도 아이를 맡기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원래 목적이 워킹맘이었잖아요. 맡기고 싶어도 가 봐도 대기 순서 몇 십 명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가 잘못됐다는 거죠. 또 애기 엄마들 애를 맡기고 출근하면은 보통 직장이 먼 경우는 9시 넘어서 출근하게 되요. 그 문제, 그리고 퇴근도 빨리 해야 되는 문제.

## 나. 비정기적 양육 도움이 필요함

위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달리 정기적으로 양육의 도움을 원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때에 비정기적으로 가정 내에서 자녀를 돌보아 주는 서비스가 정착이 되어 세 자녀 어머니가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거나 볼일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다. 이는 앞서 양적 연구에서 나타난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병원 진료와 같이 필수적인 육구조차 도움 없이 다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에게는 어려운 일임이 나타났고,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여 받아보았으나,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였다.

매일 매일 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에게 어떤 휴식 시간? 좀 재정비 할 시간? 음 저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저만의 시간, 저 혼자만의 시간... 근 10년간 저는 저의 생활이 없이 그냥 아이만 키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출산, 분만, 육아, 출산, 분만, 육아, 출산, 분만, 육아 계속.

(아이돌봄 서비스가) 시간을 내 시간에 맞춰준다고는 하는데, 어 그 급하게 내일, 모래 이렇게 갑자기 이게 생겼을 때는, 연결이 안되면 안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2~3일은 시간을 뒤야. 미리 시간을 뒤야 되고, 1시에서 2시까지 약속을 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밖에서의... 특히 병원을 갔다.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그러면 안되는 거잖아요.

## 다. 주택 관련 지원을 희망함

현재 다자녀 가구의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 경쟁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정책, 국민주택기금 이용 시 주택자금 대출 혜택 부여 등 관련 정책들이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하지만 본 질적 보완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이용 경험이 없었다. 외벌이 가정의 한 아버지는 소득이 적은 상태에서 다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생계비로 모두 지출되어 저축의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고, 5인 가족이 살 수 있는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에 하나 낳을 때마다 살림이 하나씩 늘더라고요. 공간이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고, 그게 제일 어려웠고... 외국 같은 경우는 애들 인원수에 따라서 뭐 한다고 하는데, 공간 때문에 또 부모들이 안 낳으려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나라에서 해준다면, 인원수에 따른 집안 배정 같은 거 있잖아요. 평수가 안 되면 애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이제 전세자금을 제가 확보를 할 수 있는 영역이 크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급여를 받아도 생계비로 다 들어가니까, 저축이 안 된 상태니까 전세자금을 확보할 확률이 점점 더 멀어지고, 오히려 대출을 하면 했지 저축할 확률보다는 대출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뭐 셋 정도 낳으면 대부분 다 어렵지 않을까, 남자 혼자 벌기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 라. 지출 경감 혜택을 희망함

다자녀를 둔 부모들은 “모든 혜택이 완벽할 줄 알았는데.”라고 말하며 기대한 것에 비해 다자녀 관련 지원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하였다. 본인들의 혜택을 위해 신청을 하였던 경험에 비추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존재하지만, 자격 요건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획일화된 기준을 사용하기에 수립된 정책과 현실적 지원 사이에는 갭이 있다고 하였다. 이들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평가를 통보받게 된 이유로는 부채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소득액, 다자녀 부모의 높은 학력, 작은 규모의 주택소유, 많은 가족 수에 따라 지출되는 보험료 등이었다.

영유아 예방 접종 같은 것도 오히려 비싼 거는 무료가 아니예요. 기본 접종이라고 해서 쓴 것들은 무료인데 선택은 다 비싼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는 혜택이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예방접종 한 번에 몇 십만 원, 십 몇만 원 없어서 못 맞추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벌이는 안 되도 집이 있어버리면 그런 거 때문에 소득인정액까지 따져가지고 결국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건 좀 불합리하죠.

만약에 세 자녀 혜택 있다고 해서 가 보면은요 저희는 혜택을 못 받았어요. 솔직히 또 보험료도요, 가족이 많으면 보험수기도 올라가요. 보험료도 많이 내는데 어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보험수기는 인원수대로 해서 올라가고, (다자녀)혜택은 보험료 얼마 이하 딱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것 나오면 에이, 또 우리 일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쳐다보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좀 그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주아주 차상위계층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그냥 별로 혜택이 없더라고요.

한전에 전화해서 저희 세 자녀고 그런 서류를 해주면 거기서 이제 몇 프로 할인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문제도 있는 게, 셋이니까 이렇게 식구가 많잖아요. 그럼 전기도 많이 쓰게 돼있어요. 근데 300kw 넘어가면 더 낸. 누진세 더 내는 거 아시죠? 저희 또 누진세를 내요.

#### 마. 출산 지원금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몇몇 세 자녀 부모들은 다자녀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비록 출산과 양육 지원금이 적더라도 국가가 개인의 자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음을 표현하는 방편이라고 여기며, 이러한 사회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이용해 본 다자녀 관련 서비스를 거론하며, 이와 같은 지원들이 다자녀를 양육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서비스의 양과 질 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고, 지역별로 수혜 자격 및 프로그램 내용에 편차가 있다고 하였다.



출산할 때 30만원 준다고 그게 뭐가 되겠어요? 하지만은 그것이 국가가 너희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의 의사표현인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물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나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모유수유를 도와주시는 분을 파견을 주신다던지...그 아이돌봄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뭐 한 달에 지금 셋째니까 60시간을 이제 그 도우미분을 제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좀 등성등성 구멍은 있지만, 그래도 채워지려면 채워지더라고요...도우미 서비스라던지 그런 거 이제 뭐 제가 하면은 그 시간에 둘째 데리러간다던지, 첫째 픽업을 하러 간다던지.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겠, 뭔가 등성등성 시스템을 해 놨어요. 이게 촘촘히 엮여지지는 못했지만...제가 다른 구나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수혜를 많이 받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구멍이 아직 많죠.

#### 4. 다자녀 가정이 희망하는 사회여건

희망하는 지원 정책과 더불어 세 자녀 가정의 어머니들이 바라는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 여건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표 6>은 응답자들이 “귀하는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설문 문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자녀를 키우기에 바람직한 사회 여건을 살펴보면(1순위 기준), 다자녀 어머니들의 39.0%가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강화와 같은 교육 여건 개선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및 복지수준 향상과 같은 전반적인 복지 개선이 19.7%로 그 뒤를 이었다. 세 번째로 많이 거론된 사회여건은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및 지나친 경쟁 사회 지양 같이 사회인식 변화에 대한 응답이 12.6%를 차지했다. 그 밖에도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과 고용 안정 역시 출산 및 양육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회여건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6. 다자녀 가정 어머니들이 바라는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 여건의 종류

구분		응답전체*	1순위	2순위
영역	지원의 종류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여건 개선	- 사교육비 경감 - 공교육 강화	190 ( 76.0)	99 ( 39.0)	91 ( 37.0)
사회인식 변화	-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 지나치게 경쟁적 사회 지양	69 ( 27.6)	32 ( 12.6)	37 ( 15.0)
사회복지 향상	-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 복지수준의 향상	97 ( 38.8)	50 ( 19.7)	47 ( 19.1)
사회 안전성	-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68 ( 27.2)	26 ( 10.2)	42 ( 17.1)
경기 활성화	- 고용안정	48 ( 19.2)	31 ( 12.2)	17 ( 6.9)
기타	-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 양성평등 구현	28 ( 11.2)	16 ( 6.3)	12 ( 4.9)
계		-	254 (100.0)	246 (100.0)

주: 1) \*순위형 다중응답분석을 통하여 가중치를 1순위에 200%, 2순위에 100%를 부여하여 분석하였음.  
2) 1순위에는 무응답 1명, 2순위에는 무응답 10명임.

<표 6>에서 제시된 바람직한 사회 여건의 형태는 질적 보완연구 결과에서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응답자들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및 보육시설의 질 향상과 같은 유형의 사회여건을 언급하였고, 사회인식 변화와 희망적인 사회분위기 조성과 같은 무형의 여건 또한 논의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 가. 교육비 부담 완화의 필요성

양적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심층면접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였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다자녀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쌓고 있었다. 형제 자매 간에 도움을 주는 품앗이 교육을 통해 사교육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고, 모든 자녀에게 사교육을 골고루 시키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녀 마다의 특성을 살려 집중된 사교육을 제공하는 부모도 있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교육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하여도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매우 크다고 하였다.

다른 사교육비 같은 거는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큰 애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서 과외를 하고 직접 가르치고 하니까, 둘째는 지 언니가 가르치면 되고, 셋째는 누나들 둘이나 있으니까 가르치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학원비 문제는 별 걱정이 안 드는데. 근데 대학등록금이 문제죠.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또 집안 형편이 넉넉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니까, 솔직히 학원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영어도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싶고, 악기도 하나 해주고 싶고, 하나면 뭐 개한테 올인하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마다 또 재능이 있어요. 나름 이렇게 보면은 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좀 재능을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 나. 보육시설의 질 향상

응답자들은 보육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시설상태가 열악하거나 보육교사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음을 거론하며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이 늘어나면 다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환경이 안 좋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어린이집이 안 좋아도 가는 거야. 여기 이 근처에 어린이집 몇 개나 돼요? 이 근방만 해도 구립은 2개 밖에 없어... 선생님의 인성도 영향이 엄청 큰데, 그거는 우리가 골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을 전문성 가진 사람을 뽑아서 하는 거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또 실제로 들어가면 애들한테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일 하는 사람들...애기들이랑 1년 동안 지내면서 애기의 성향을 몰라. 그런 인성을 가진 선생님들이 있어요.

## 다. 학벌위주의 사회문화 타파

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를 키울만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특수한 사회분위기인 학벌위주 사회문화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경쟁 중심인 한국의 사회분위기에서 탈피하여, 가능하다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살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대학을 안 가도 전혀 차별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든지...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고, 갈수록, 뭐라 그럴까, 갈수록 각박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문득문득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좀 불편하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그런 희망이 자주 없어져요. 변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정말 SKY 같은 유명 대학이 아니면 더 대우를 못 받는다, 힘들어지는 상황... 오히려 자기 스펙 때문에 유학도 가야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더 힘들어진다. (중략) 그래서 나중에 니네 유학가고 싶으면 가라, 가서 돌아오지 마라라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가서 좀 경쟁 없는 데 가서, 유럽이나 미국 이런 나라가 아니라 좀 못사는 나라라도 가서, 니네가 가서 편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 가끔 해요.

## 라. 희망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심층면접에 참여한 세 자녀 부모들은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규정하지 말고 국가 공동체가 관심을 가질 때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느낄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사회에서 난관을 극복하며 성공적으로 다자녀를 키운 사례를 제시하고 희망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때 부모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출산을 이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이들은 사회가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모든 육아의 책임이 개인한테 가 있잖아요. (중략) 옛날에는 공동체가 많이 키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을. 그래서 육아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그런 게 있었던, 네트워크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온전히 아파트에 박혀서 개인이 인터넷으로 본 것만 가지고 자기가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는 거여서.. 너의 아이는 너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의 아이들이야, 귀한 생명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좀 인지하게 해주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해요.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이나 이런데 그냥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짬짬이라도 아이를 좀 돌봐주면서 엄마가 좀 아이랑 좀 떨어져서 엄마가 그 엄마의 그 힘든 것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좀 하나 해서. 그러면 엄마가 뭐 긴 시간 아이 때문에 어차피

불안해서 떨어져 있던 양을 테지만 그 시간이 정말 꿀 같아요. 꿀맛 같은 그 시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주면 좀 엄마들이 힘내서 애를 키우지 않을까. 그러면서 애 하나 키우는 것 많이 어렵지 않네, 그럼 그 다음에 하나 또 더 낳아보려는 생각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돈이 없어서 아이를 두려움에 못 키우게 하는 짓눌리는 사회가 일단 저는 잘못 났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같이 키우게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돈이 아니어도 요즘은 공동육아, 품앗이 다른 방법들이 있잖아요. 사회에 자기 에너지를 나누고 하면 뭐, 충분히 키울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저출산의 기본은 '야 애 낳으면 30만원 줄게'가 아니고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일을 하면 내 자식을 키울 수가 있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보여주는 게 장기적으로 저출산을 막는. 아이를 마음 편하게 낳고, 뭐 즐겁게 키우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1억 드는데, 출산하는데 30만원 준다면 누가 낳겠어요? 희망을 주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자녀 가정 부모들이 희망하는 사회 여건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 중 5인 가족에게 적당한 규모의 주거 환경 마련, 지출이 많은 가구의 소득공제 등은 다자녀 가정의 특성상 필요한 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외에 거론된 여건들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면 다 공감할 만한 내용이었다. 사회 환경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하여 사람들이 과도한 경쟁에 치우치지 않고, 사회복지의 질이 좋아지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회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곧 부모들에게는 살기 좋은 사회라는 인식을 주고 애 키우기 좋은 사회 여건이라는 희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다자녀에 대한 세부적이고 특화된 지원도 중요하지만, '살기 좋은', '애 키우기 좋은 사회'가 조성되었을 때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를 더 낳겠다는 동기부여가 됨을 역설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 V. 논의 및 차기 연구 방향

본 연구는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와 세 자녀 부모의 심층면접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의 욕구를 살펴보았다. 연구진은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자녀를 둔 가정은 성별선호가 없이 다자녀를 원하는 가정(집단 A), 성별선호가 있고 다자녀를 원하는 가정(집단 B), 성별과 관계없이 다자녀를 원하지 않은 가정(집단 C), 다자녀를 원하지 않았으나 셋째 출산과 관련하여 특정성별을 선호하게 된 가정(집단 D)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출산력의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집단 A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자녀가 많은 것을 희망하였기에, 출산으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정성별의 자녀를 낳고 싶어한 경우를 살펴보면(집단 B와 D) 일부 부모들이 보여주는 남아선호사상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면에서 고민할 점이 있다 하겠다. 즉,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건전하게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은(집단 C와 D) 갈등과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가족계획 수립 및 실천 여부, 부부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의미찾기 등의 과정을 통해 매회의 출산 경험이 준비 후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녀양육법을 다루는 부모되기에 관한 교육과 함께 기혼자 및 출산경험자의 피임에 대한 건강교육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자녀 가정이 바라는 사회적 지원 및 여건을 정책제언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으로는 다자녀 가정 주택 특별공급,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세제 지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세 자녀 이상 전기료 감액,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우대카드, 둘째아 이상(2011년 이후 출생아)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등이 있다(법제처, 2013).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의 면접에서 드러났듯이 획일화된 자격요건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가정이 바라는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지원 및 여건을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보육과 교육비를 가장 필요한 사회적 지원이라고 언급하였고, 바람직한 사회적 여건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세 자녀 부모들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교육적인 측면을 매우 신경 쓰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제적

인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과 여건이 조성되어야 다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세 자녀 부모들은 셋째 자녀를 임신하면서부터 자녀의 대학등록금 마련에 대한 걱정을 하기도 했다. 그들은 현재 한국사회가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하고 고용 불안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최선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경쟁의 최종목표는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대학입시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이부미·이수정, 2010). 과도한 사교육 열풍은 자녀가 반드시 대학에 입학해야 한다는 목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당시부터 자녀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출산 및 양육에 영향을 미치므로 저출산의 경향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자녀의 진정한 교육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 신중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사교육의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자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환경과 교육제도를 선택할 수 있고,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너그러워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유자녀 가정이 요구하는 사회적 지원 또한 다자녀 가정과 다르지 않았다. 다자녀 가정 뿐 아니라 대부분의 유자녀 가정에서 자녀 보육과 교육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자녀 가정을 표적화하여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보편적인 보육 및 양육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본문에서는 강조되지 않았던 직장 여건 개선이나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개선 등 여성들의 경력에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와 기업에서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정의 지원정책 욕구는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배경이 반영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70% 정도가 전업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력단절과 취업욕구에 관한 점은 부각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다자녀 가정 어머니들의 취업을 유지시키거나 자녀 양육 후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결혼과 출산에 더 긍정적이고 가정친화적인 기업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며 추후 다자녀 가정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영역을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다자녀 가정은 출산력 향상에 많은 공헌을 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집단으로, 그 자체로도 연구의 대상이 된다. ‘다출산 가정의

가족계획실태’, ‘출산 경험자의 후속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자녀 가정의 책임한계 비교연구’, ‘다자녀 가정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경험과 기회’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세분화되어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정책 연구도 제안한다. 세 명의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 어머니들은 장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아이들을 키우는 역할을 남들보다 오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자녀에 대해 동시에 양육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현재 다자녀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음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크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 못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이들의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욕구를 파악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염주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관심 연구분야는 노인복지, 교통 접근성, 혼합 방법론 등이다.  
(Email: jhyum@kihasa.re.kr)

정승은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에서 간호학 석사학위와 간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교통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관심 연구분야는 노인건강, 여성건강, 간호교육 및 질적 연구방법론 등이다.  
(Email: sechung@ut.ac.kr)

주영선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관심 연구분야는 빈곤, 자산형성정책 등이다.  
(Email: youngsun@kihasa.re.kr)



## 참고문헌

- 강혜진(2009). 저출산 시대 여성의 다자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사회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김성혜, 김초강(1991). 결혼관련 요인의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8(1), pp.87-97.
- 김승권(2010).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보건복지 Issue & Focus, 68
- 김정숙(2006). 저출산 현상에 대한 한 자녀 및 다자녀 가정 어머니의 인식 탐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뉴스웨이(2012.5.1). 다자녀 가정이 곧 국가경쟁력. <http://www.newsway.kr>에서 인용.
- 문숙재, 양정선, 이성은(2007). 다자녀 가족의 인적자본 투자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pp.43-57.
- 박수미(2005). 가족내 젠더구조와 저출산: 생애주기별 접근.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법제처(2013.2.15). 다자녀가구 지원. <http://oneclick.law.go.kr>에서 2013.3.6. 인출.
- 신효영(2009).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박사학위논문, 아동청소년복지학과, 한서대학교, 충청남도.
- 윤영혜(2006). 세 자녀 이상 가정과 두 자녀 이하 가정의 출산관련 요인 비교. 석사학위논문, 역학 및 보건정보학과, 고려대학교, 서울.
- 이명진(2009). 여성의 출산계획 결정요인과 그 사회적 함의. 여성가족패널 학술심포지움 논문집. pp.25-45.
- 이부미, 이수정(2010). 조기교육: 불안한 부모와 바쁜 아이들. 시민인문학, 18, pp.85-107.
- 이혜경(2011). 다자녀 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 幼兒 教育學論集, 15(6), pp.377-406.
- 임춘희(2011). 다자녀가족 부부와 개인의 다자녀가족 강점지각에 대한 연구. 한국인간발달학회, 18(1), pp.19-64.
- 중앙일보(2012.3.14). 셋째 자녀 출생 증가에 주목한다. 중앙일보 사설, 38면.
- 조선일보(2012.5.20). 한 명만, 아니면 아예 셋 이상...출산의 양극화. <http://www.chosun.com>에서 인용.
- 통계청(2011). 2011년 출생 사망통계. 통계청 보도자료(2012.2.2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Braun, V.,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pp.77-101.
- Denzin, N. (1989).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Morse, J., Niehaus, L. (2009). *Mixed method design: Principles and procedures*. CA: Left Coast Press.

# Family Planning Experience and Service Needs among Families with Three Children: Using a Mixed Method Approach

**Yum, Joohe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hung, Seung Eu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Joo, Young Su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This study focuses on the families with three children(also known as “families with multiple children”) in Korea and examines various factors associated with their family planning experiences. The study adopts a QUAN → qual mixed method approach using the 「2009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as a core dataset and fifteen in-person qualitative interviews as a supplemental dataset. The findings illustrat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amples and a model on process of forming families with multiple children due to various reasons. Finally, the authors discuss types of services that parents with three children perceive as helpful and make policy recommendations to support these families.

---

**Keywords:** Low Fertility, Family Planning Experience, Families with Three Children,  
Mixed Method Design